

VIII-4 은행 · 외국송금

1. 은행

일본회사에서 일하고 또 6개월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와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정해진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합니다. 구좌를 개설하면 통장이 발행됩니다. 이것은 거래를 기록하는 동시에 본인이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통장과 도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경우는 싸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면 ATM의 카드(현금카드)를 발행해줍니다. 통장이 없어도 기계에서 예금이나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밖에 열지 않고 있으나 ATM의 경우 그 외 시간에도 기계에서 인출 등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나 역구내 등에도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 경우가 있습니다.)



2. 우체국

일본우체국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있으면 누구나 구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ATM 카드를 발행해줍니다. 우체국의 처축·송금업무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고있습니다. (연말연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안 함)

3. 외국송금

외국송금은 은행과 우체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지점에 따라서는 외국송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의 외국송금은 유우초은행·국제송금취급우체국에서만 하고있습니다. 구좌에서 구좌로 송금하는 방법이외에도 머니오더(외환증서)를 작성하여 우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머니오더도 은행 및 우체국에서 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상 송금수속시에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창구에서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은행, 우체국 등 허가된 기관이외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시시오.